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6월 ~7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일본, 농림수산성, 쌀, 품질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일본, 농림수산성, 쌀, 품질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07.
일본, 쌀가루용
및 사료용 쌀
재배 정책 추진

2011. 11. 17.
일본 농림수산성,
쌀가루용 쌀
생산목표수량 증대

2017. 1. 7.
일본 농림수산성,
쌀가루 용도별 기준
신설 발표

핵심이슈
도출

“일본, 쌀가루 용도별 기준 신설 예정”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일본, 쌀가루 용도별 기준 신설 예정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농림수산성은 지난 1월 7일 쌀가루의 용도에 따른 기준을 신설해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서 생산되는 쌀가루는 품질에 통일성이 없지만 쌀가루의 용도별 기준을 신설하여 소비자가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쌀가루의 소비 확대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밀가루는 단백질량에 따라 박력분, 중력분, 강력분으로 분류하고 있어 용도에 따른 조리가 용이하지만 쌀가루는 빵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높은 가격으로 연간 약 2만톤 정도로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또한 일본은 주식용 쌀의 수요가 매년 약 8만톤 정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쌀가루의 용도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식용 쌀 이외의 용도로 쌀가루를 사용을 장려하고 남은 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하는 것이다.

쌀가루 용도별 기준 초안에 따르면 쌀가루의 전분 성분과 수분 함유율을 기준으로 과자·요리용은 '1번', 빵용은 '2번', 면용은 '3번'으로 표기할 방침이다. 쌀가루의 용도별 기준은 농림수산성의 지원을 받은 민간단체가 3월까지 만들 예정이며 일본 정부는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설명회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알레르기 등을 유발하는 글루텐 제품에 대응한 논 글루텐 (Non-Gluten) 제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림수산성은 글루텐 함유량이 1ppm 미만의 쌀가루 제품에 한해 논 글루텐으로 표시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성 담당자는 논 글루텐 표시는 쌀가루의 특징을 부각시켜 논 글루텐 쌀가루 제품을 개발하는 제조업자들의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일본 농림수산성은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가루 용도별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향후 3월 해당 기준이 수립될 예정으로 쌀가루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일본에서 신설되는 쌀가루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과 용도에 맞는 쌀가루 제품을 개발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한편 글루텐 함유량이 1ppm 미만의 쌀가루 제품에 논 글루텐 표기도 고려하고 있어 논 글루텐 쌀가루 제품의 수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제품의 차별성이 보다 강조되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된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